



◇부처님께서 그러했듯 중생을 거두어 주이소. 일체 연락을 끊었던 성철스님이 출가후 처음 부인과 외담을 만나는 장면. 스님을 바라보는 부인의 시선에서 간절한 염원이 배어있다. 부인과 딸도 나중에 출가에 비구니가 된다.



◇부처님께서 너무 애쓰지도 게으르지도 않은 중도의 길을 가라고 하셨습니다. 12월6일 내소시 촬영에서 동자승의 대사 표정 시선까지 일일이 교정해 주는 박철수감독의 모습이 진지하다.

'산은 산 물은 물' 그 소식 아시나요

영화 '성철' 무엇을 담나

"김영감까지 머리깎고 중되면 우야보 걱정했데이."
 "내사 부처님한테 절하는 것 귀찮아서 못합니다."
 "그 말도 맞다."
 "하기사 옛날 폭수일하면서 경문도 외아 불라고 한 적도 있었지만 당혹에 머리가 돌이킬거라요."
 "그러면 아는 글이래곤 하나도 없단 말이나?"
 "딱 한자밖에 모릅니다."
 "그기 뭐고, 한번 써 봐라."
 김 노인이 나무 패다가 한 일(-)자를 찍 굵고 다시 나무를 패며 말한다.
 "산이 물이 될 수 없고 물이 산이 될 수 없겠거니 그날 부처님한테 평생 풀삭이나 받아가며 사는 재미도 있는 거라예. 산이 물이 될 수 없고 물이 산이 될 수 없는 이치 아닙니까?"
 성철스님은 언뜻 부처님의 모습을 본 듯 함장한다.
 (영화 '성철' 중 성철스님과 김노인의 대화 중에서)

**성철스님 가신지 어느새 4년
 영화관에 큰스님 나투셨다
 같은 하늘아래 계신 것만으로도
 중생들에게 큰 힘 되셨던 스님
 그 깊고 넓은 수행과 사상
 내년 초피일쯤 뵈울 수 있으리**



◇성철스님 생전의 모습

삼의 표표를 잃어 버린 현대인들의 방황, 자아를 상실해 버린 현대인들의 고독, 그리고 경제난에 허덕이며 무기력증에 빠진 현대인들의 비애. 이 심상치 않은 시대에 성철스님이 은막을 통해 환생한다.
 스님은 어떤 법어를 들려 주실까.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일까. "일생동안 남녀의 무리를 속여..." 일까. 아니, 그런 한마디의 법어는 중요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성철스님이 다시 우리 곁으로 온다는 사실이 이미 중생계를 뒤엎는 법어일 수도 있을 것이다. 살아서는 '그 곳에 스님이 계시는 것'만으로도 중생들에게 힘이 되었고, 입적해서는 '입적 그 자체'만으로도 사바세계를 울리는 법문이었던 스님이었으므로.
 12월5~6일 은양 민속마을과 부안 내소사에는 한국불교의 선사상을 이루며 정열로 겨울을 녹이는 영화 '성철' 촬영으로 20여명의 취재진과 30여명의 스태프가 와글와글 모여 들었다. 박철수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영화 '성철' 촬영이 가속도가 붙어 추위로 아랑곳 없다. '스스로 수행자 입장이 되어 촬영에 임하자'는 각오로 스태프들은 영화 촬영에 앞서 108배를 올렸다.
 영화 '성철'은 종래의 불교영화에서 흔히(?) 보여졌던 고풍스러운 속세를 벗어나기 위한 현실도피적 출가의 영화를 거부한다. 그리 불행하지 않은 환경에서도 출가의

길을 택해 초인적 정진으로 깨달음의 길을 걸었던 성철스님의 수행과 사상을 영상에 담아 전세계인들을 경이로움에 빠져들게 하리라는 제작진의 포부는 불교 영화의 새로운 가능성도 암시하고 있었다.

"웃! 스텝바이 카메라 쥬 레다~고!"
 "이제 장승이 석씨가 된다카이 기가 막힐 노릇이제. 나무 아이타볼. 길가던 스님이 정해진 성철스님의 출가소식을 접한 아버지의 비통함이 사무친다. 박감독의 쥬 사인이 떨어지고 카메라가 돌아가는 순간 개짓는 소리가 요란하다. 다시 레다 고! 이번엔 연기가 좀 어둡다. 아버지가 화가 나는 가운데도 순간적으로 나무아이타볼을 찾는 것은 스님으로 인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 불교에 동화되어 간다는 의미라며 연기자에게 세심하게 지적을 한 박감독의 쥬 사인이 떨어졌지만 계속되는 NG. 박감독이 스태프 중 한 명을 지적하며 북망시킨다. "한국에선 필름이 생선되지 않는다." 촬영연장엔 긴장감이 들고 재촬영. 이번엔 차소리 비행기 소리에 연거푸 망연자실. 결국 6~7번의 반복 끝에 OK.

"소임을 다해서 열심히 살거라. 중생이 삼세를 통해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기가 쉽지 않은 법인이라. 생명을 아끼고 뜻을 바로 세우거라." 성철스님은 출가 후 10여년간에 만난 딸 윤주에게 이런 말을 남긴다. 이 말은 이후 윤주의 출가동기가 된다.

다음날 아침부터 촬영장비를 이끌고 내소사로 달려 왔건만 비상이 걸렸다. 비 때문이다. 결국 오전엔 아무 촬영도 못하고 비 내리는 하늘 구름 걸히기만 기다리던 박감독은 드디어 결단을 내렸다. 오후2시, 성철스님에게 계를 받고, 이후 스님의 딸 윤주의 머리를 삭발해 주는 비구니 헤미스님의 출가전 고쳐를 담아내는 작업에 들어갔다. 김노인의 무애자재한 모습 속에 공양주의 초췌한 모습이 겹쳐진다. "누구를 원망하고 서러워하며 신세한탄이나 하는 제 마음을 버리고 싶습니다. 부처님 세수나 정성껏 시켜드리면서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아직도 비는 그칠 기미를 보이지 않았지만 성철스님이 구도행각을 떠나는 장면도 내친김에 필름에 담았다. 비 내리는 일주문 밖 가시는 길을 걸을 낙엽밭과 가시는 성철스님. "실로 자아만큼 나를 괴롭힌 것은 없었다. 내가 살아 있다는 이 수수께끼, 내가 다른 모든 것과 구분되고 떨어져 존재하는 이 수수께끼를 향해 나는 오늘 세상에 거듭 태어난 것이다."

내년 부처님 오신날 무렵 우리는 극장에서 영화 '성철'을 만나게 된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만나고 싶은 것은 영화가 아니라 성철스님이 아닐까.

글=김지연 사진=고영배 기자

박철수감독이 말하는 '성철'

"'성철'은 단순한 성철스님의 앞대기를 그리는 영화가 아닙니다. 한국 불교계의 큰 스승인 성철스님의 구도행각과 독특한 구도세계를 빌어 방황하는 현대인들에게 마음을 찾아주는 영화로 만들었습니다."

영화 '성철'의 감독 박철수(49)씨. '중무로의 늙은 테러리스트'라는 별명에 걸맞은 추진력으로 '박철수식 영화만들기'라는 신조어를 탄생시키며 영화계에 저예산 영화의 물결을 일으켰던 그가 영화 '성철'로 또 한번의 변신을 시도한다. 그의 최근 영화 경향은 테크니컬한 '301·302', 시장관 굿관을 방불케하는 시끄러운 영화 '학생부군신위', 옛보기 방식인 '산부인과' 등으로 이어지며 감각적인 현대인의 욕망과 삶을 표현해 왔다. 이에 비해 불교영화 '성철'은 정적인 정신세계의 조화를 다루 세기말에서 세기초로 이어지는 혼란의 시기에 "마음을 밟고 살아가는 사람을 위한 영화이자 관객을 화면 속으로 몰입시키는 영화가 될 것"이라고 박감독은 설명한다.

"세간에 나온 성철스님 관련 책은 다 봤어요. 너무 많이 봐서 오히려

"방황하는 현대인들에게 마음을 찾아주는 영화"



감감했습니다. 과연 내가 성철스님의 깨달음을 영화에 담아낼 수 있을지 걱정도 많았습니다. 지금은 무념상태의 편안한 마음으로 촬영에 임하고 있어요."

'성철'의 캐스팅에 대해서도 "나이별로 배우를 바꾸지 않을 거라서 20대부터 70대까지 분장할 수 있는 배우를 찾았습니다. 부인 역을 맡은 김혜연씨, 딸 역을 맡은 이혜은씨는 그런 얼굴을 가진 배우구요. 성철스님 역을 맡은 장석남씨는 시골(靜心)이 너무 맑아 만지면 내 손때가 묻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거기다 시인의 세상을 보는 눈과 불교에 심취해 신사를 떠돌아 다닌 정력 등이 구도자로서의 성철스님을 잘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 과감히 캐스팅했습니다"고 소개했다. 종래의 고착화된 시각을 탈피한 신선한 캐스팅이 될 것이라는 게 그의 신념이다.

우리 영화계가 살아남을 수 있는 지구력은 바로 세계성 확보에 있다고 보는 박감독은 한국불교야말로 한국영화의 세계시장 확보에 주춧돌 역할을 할 잠재라고 믿고 있다. 이런 믿을 때를 알까, 그의 포부는 엄정하다. "서양사상이 퇴조하고 동양사상이 범세계적인 정신문화의 흐름을 주도하는 요즘 경향에 비추어 '성철'을 계기로 앞으로 '불교적 오리엔탈리즘'을 담은 영화로 세계시장에 교두보적인 작품을 만드는 게 남은 영화 인생의 목표입니다."

"내연연기에 충실할터"

성철스님역 장석남



불교와 인연이 참 지중합니다. 성철스님 역을 맡은 것도 그렇구요. 성철스님에 관한 책도 많이 봤습니다. 아직 스님에 대해 많이 아는 모르지만 박감독과 의논을 하며 스님의 모습을 찾아가는 중이죠. 제가 쓰는 시가 지향하는 것이 삶의 비밀을 찾아간다는 점에서 불교와 비슷하다고 생각해 불교에 관심이 많습니다. 한때 입산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한 적도 있고요. 만약 독실한 불교집안에서 컸다면 벌써 출가했는지 모르지요. 아직 인연이 안 닿아서인지 그렇게는 못했습니다. 이 영화를 통해 성철스님의 인간적인 측면에 주인공을 두고 스님의 현대적인 모습을 재현하고 싶어요. 앞으로는 시에 전념해야죠.

"하고싶은 역 맡아 행복"

김노인역 전무송



'민다라' '이재자재 바라자재' 등 4편의 불교영화에 출연했는데 그때마다 스님 역할이었습니다. 이미지가 고착될까봐 한 동안은 불교영화 출연을 자제해 왔어요. '성철'에서 맡은 역은 절에서 허드렛일 하는 김노인 역입니다. 대본을 봤을 때 가장 하고 싶고 애착이 가는 역이었죠. 배우는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가장 행복한 법이죠. 김노인은 절집에 살면서 생활 자체에 욕심이 없고 스님 봉양하며 살지만 이미 생활 속에 불림 있는 것을 깨달은 인물입니다. 한산이나 습득처럼 말이죠. 김노인 역은 연기보다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달란한 모습을 어떻게 보여야 할지 고민입니다.

"삭발요구 흔쾌히 수락"

헤미스님역 김성미



공양주로 절에서 생활하다가 성철스님에게 유일하게 계를 받는 비구니 헤미스님 역을 맡았습니다. 헤미스님은 중학교까지 졸업했지만 속가와와 갈등 등 세과에 찌들려 절에 들어온 인물입니다. 그런 그녀가 성철스님의 수행하는 모습을 보며 교화를 받아 결국 출가수행자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죠. 영화 촬영에 들어가면서 108배를 하며 한국불교를 배우고 예법을 배웠습니다. 참 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섭외가 왔을 때도 선택 수락했구요. 삭발을 전제로 한다는 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의아해 하기도 했지만 한국불교를 전세계에 알린다는 거창한 포부도 좋았고 성철스님께 계발은 유일한 비구니라는 점에 마음이 끌렸습니다.

"절집 예절 등 잘못없게"

불교자본 법전스님



성철스님의 출가 소식을 알려주는 스님 역할을 맡은 단역배우가 오지 않아 우연히 단역으로 출연하게 됐습니다. 안하려고 했는데 박감독이 그냥 앉아 있긴만 하면 된다고 해서 분장하고 촬영하게 됐죠. 사실 도깨비놀을 한바탕 한 느낌입니다. 나는 공부하는 스님이지만 평생할 이 공부가 하루 늦어지더라도 부처님 법을 전할 이런 좋은 기회가 왔는데 도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불자들에게 또 일반인들에게 우리 불교의 위대함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 아니겠습니까. 본래 저는 자문을 위해 이 영화와 인연을 맺었습니다. 스태프들이 잘 알지 못하는 절집 예절, 종속 등을 교정해 주는 역할이지요.